

목회자칼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대하는 태도

요즈음 인터넷을 보면 자신만만한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사에 댓글을 쓰는 사람까지 정치, 경제, 스포츠, 어디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돌을 던지기에 바쁘니다. 본인들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로 한심해 하고, 답답해하고,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비난하는 댓글이 넘쳐 납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의로운 사람처럼 표현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 더 나아가 죄에 대한 얘기를 접할 때, “한심하다, 게으르다, 이기적이다, 못 됐다, 어떻게 이런 자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었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라고 흥분이 된다면 그건 아직 내가 미성숙하다는 증거일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그런 자리와 유혹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으니 망정이지, 나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충분히 그랬을지 모른다 라고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함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목회의 현장에서 가끔 교회 안에서 안 좋은 소문이 돌 때, 그것을 가십거리로 만들지 않고, 잠잠할 수 있는 성도의 성숙함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역시도 소문을 가십거리로 삼아 불리고, 남에게 전하지 않고 잠잠할 수 있는 것은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자신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성숙함이 있을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1-5)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결국 그 판단의 잣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판단의 대상은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생각과 동기들일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결점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 해 갈수록 느끼는 것은 우리가 자신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우리의 악한 생각과 동기를 가려주시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인 것 같습니다. 교만함으로 비난과 비판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잘못을 불쌍히 여기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사랑의 동기로 바로 세우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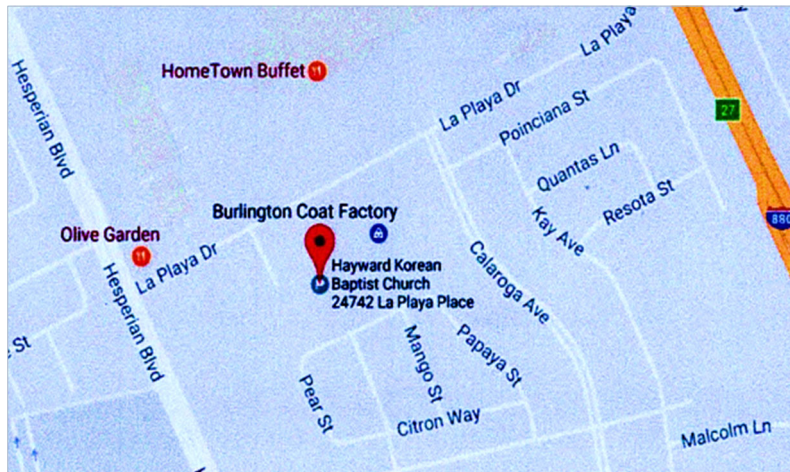
예배및모임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0 시 30 분	본당
어린이예배	오전 10 시 30 분	유치부실
영어예배	오전 10 시 30 분	영어부예배실
주일성경공부	주일오후 1 시	유년부실
수요기도회	수요일오후 7 시 30 분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화-토오전 6 시	본당
목장모임	매 주	목장별각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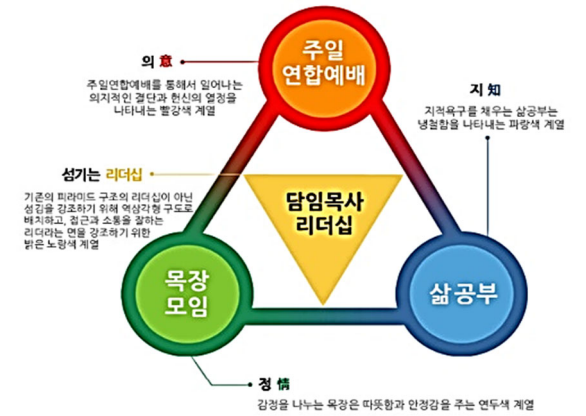
섬기는분들

담임목사: 이진수	510-415-0671	timjdsn@gmail.com
Youth: Paul & Lena	510-872-2212	Paul.lee@gpmail.org
어린이교회: 이은진	510-415-1696	ejoysong@gmail.com
안수집사: 고현명, 윤완선		
섬김목장:이진수목사	소망목장: 정병철교사	믿음목장: 박종철목사
나눔목장:유영민목사	따스한목장:김영란목사	은혜목장: 윤완선목사
동지목장:이화선목사	살롬목장: 조현숙목사	신바람목장: 유경주목사

교회약도



2020 년 7 월 19 일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가정교회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현명부장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설교 하나님의 사람 모세 (신 34: 10-12) 이진수목사

결단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함께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목사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헤이워드침례교회

24742 La Playa Place Hayward, CA 94545 Tel: 510-732-9191
Fax: 510-732-1212 교회 홈페이지: WWW.HAYWARDKBC.ORG

지난주설교요약

“용서의 사람 요셉” (창세기 50:15-21)

창세기에 소개하는 요셉은 청소년 시기에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 오다가 하루 아침에 형들에게 배신과 버림을 받아 노예 상인에게 팔려 이집트에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요셉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형들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노예의 신분으로 자신의 주인에게 충성했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요셉은 똑같이 원망과 불평, 복수와 분노가 아닌 감당해야 할 몫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아무리 속상하고 “이럴 수 없다” 라는 상황 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미움이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용서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7년 대흉년과 7년 대홍년을 대비하여 이집트와 주변의 온 나라의 사람들을 살리는 필요한 양식을 공급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가나안에 살면서 양식이 떨어진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오게 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집니다.

세상의 법은 내가 당한 만큼, 아니 배로 복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요셉이 세상의 법대로 했다면 형을 무참히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세상의 법인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법인 은혜의 법으로 형들을 용서합니다. 창세기 50:19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형들의 그러한 잘못되고 악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함 속에 있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으로 나의 감정과 손해에만 초점 맞추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받은 용서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용서임을 기억하고 요셉과 같이 나를 해치고, 상처를 준 자를 용서하는 삶을 사십시오.

교회소식

- 1. 중보 기도**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2. 주일 예배** -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 현장 예배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주일 10시 30분에 계속 진행됩니다.
- 3. 주일 예배 수칙** - 교회에서 현장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지켜야 할 수칙들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점심이나 모임이 없습니다.
- 4. 교회 보험 상환금** - 지난 5월 교회에 절도 피해 상환금으로 \$9,054.74이 지급되었습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7/19	7/26	8/02	8/09
대표기도	고현명	조현숙	유영민	이화선
헌화성도	홍지원	김대성	김현옥	심영민
봉사당번				

예배출석자 및 헌금

예배 출석자	주일예배	
	주일학교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예배	
지난주 헌금통계	\$4,043.04	

행사 및 모임

6 월	야외예배	취소
	전도/선교 세미나	
7 월	나바호 단기선교	날짜미정

목장현황

목장이름	모임 날짜	모임 장소	인원	다음 장소
소망목장	1월 22일	이진수	17	교회
믿음목장	2월 23일	교회	7	교회
나눔목장	2월 23일	유영민	6	심영민
섬김목장	3월 05일	이진수	8	이진수
은혜목장	2월 09일	정명희	7	윤완선
신바람목장	1월 11일	이진수	6	손다니엘
동지목장	2월 02일	이인호	5	오상균
따스한목장	1월 11일	김인수	7	서영희
샬롬목장	2월 21일	조정옥	7	김창용

*목장모임은 각각정에서 돌아가며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원선교지 안내

목장	목자/목녀	연락처	선교사
소망목장	정병철	510, 415-4156	선교사 (Malaysia)
믿음목장	박종철/박승자	510. 909-8612	유성남 (중국)
나눔목장	유영민/유경애	510. 318-0747	정주환(소망공동체)
섬김목장	이진수/이은진	510. 415-0671	장철호 (미얀마)
은혜목장	윤완선/윤선예	510. 340-1014	조영문 (Vietnam)
신바람목장	유경주	010 6427-2431	박완주/헝가리집시
동지목장	이화선/이인호	510. 915-5578	K 선교사(Malaysia)
따스한목장	김영란/김인수	510. 468-4720	김정림 (탄자니아)
샬롬목장	조현숙/조정옥	510. 396-6952	조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생명의 삶	13 주
확신의 삶	7 주
새로운 삶	13 주
경건의 삶	13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3 주
말씀의 삶	13 주
TEE 성경공부-12 주	12 주